

# 서울서 무주산 농·특산물 알렸다 무주군, 특교세 23억원 확보

### 군, 판촉행사 진행... 농업유통 양재점·서울용산역서 잇따라 업무협약

무주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최대 규모 시장의 서울장터에서 잇따라 무주산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농업유통 양재점과 서울용산역에서는 지난 23일 무주군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잇따라 업무협의를 통해 무주 농산물 홍보에 합의함에 따라 무주산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와 함께 판매망 확충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특판 행사에 무주군 홍보대사인 배우 김응수 씨도 모습을 드러내 서울지역 고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무주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최대 규모 시장의 서울장터에서 잇따라 무주산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23일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1층 행사장에 마련된 무주반딧불 우수농산물 특별 판매전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농협 관계자, 그리고 사과, 포도, 복숭아 등 농가대표, 농업유통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주 사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

이 행사장에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사과와 사인머스켓 등을 전시하고 서울지역 고객들에게 판촉행사를 펼쳤다.

이어 서울 용산역 맞이방 2층 로비에서는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19~30일까지)가 마련되면서 서울지역 고객들에게 무주산 품질 좋은 농·특산물 판매에 들어갔다.

행사장에서는 사과와 도자리청, 도라지농축액, 귀리가루, 머무와인, 천마폰프레이크 등 20여개 무주산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됐다.

23일 서울용산역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무주군대표단과 용산역장, 코레일유통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주군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방안'을 놓고 업무협의를 마쳐 무주산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망 확보가 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서울에서 잇따라 반딧불

농 특산물 판매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으며, 농가소득증대도 획기적인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홍 군수는 "농업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안정적인 판매망의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며 "이번 서울에서 무주의 맛 좋고 품질 좋은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망 확보와 인지도 확산에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개최

### 진안군, 야외 놀이·공연·스탬프 투어 등 다채롭게 열려

진안군 겨울축제인 '2022 마이산 겨울동화축제'가 지난 23일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장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개장식 퍼레이드에는 마칭밴드의 신나고 화려한 연주와 함께 진안군 마스코트 '뽕뽕'을 선두로 다양한 캐릭터 인형들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

을 반갑게 맞이하며 축제장으로 향했다.

이날 퍼레이드 마지막에는 추운 날씨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즉석에서 만든 따뜻한 몸에 좋은 홍삼떡볶이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가져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또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안군 청소년 자원봉사자모임회가 열려 축제장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자리로 만들었다.

마이산 겨울동화 축제는 23일~25일 까지 열렸으며, 얼음 미끄럼틀과 가족 컬링 대회 등 야외 놀이와 핸드벨 연주, 솜사탕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인근 시설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준비돼 축제 기간 내내 축제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대설경보 대응 제설작업 총력

진안군은 지난 22일 대설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한파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새벽부터 23일 오전까지 최고 17cm의 적설량을 기록한 가운데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해 군청 및 읍·면이 보유한 제설장비 100대와 인력 123명을 총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밤샘 제설작업을 펼쳤다.

특히 23일 오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주요 시가지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

업을 실시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온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폭설과 기온급강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및 농업시설물 관리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주민 안전·지역 발전 기대

무주군은 행안부로부터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지역현안, 재난안전)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 수요에 해당하는 △무주군 남대천 고부보 교체 및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 원을 비롯해 지역현안 수요인 △육묘장 교량 가설공사 13억 원 등이다.

황인홍 군수는 "이 사업들은 주민 안전, 지역 발전과 직결돼 있는 것인 만큼 반드시 해결이 돼야하는 건이었다"며 "그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를 비롯해 국회 등지를 오가며 공을 들인 보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무주,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남대천 고부보 교체 및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위조절을

하는 고부보가 노후(2003년 준공)돼 이를 교체(고부보 교체 3스판, 원격관리시스템 1식)하는 것으로, 호우피해를 막고 농경지의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현안 수요로 확보한 육묘장 교량 가설공사비는 13억 원으로 무주군은 무풍면 지성리 일원에 교량을 신설(B=8.0m, L=35.0m)하고 제방 및 접속도로(L=1,600m)를 조성한다. 이 사업으로 차량 우회 및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기존재정 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방공공시설 설치 등의 지역현안이나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복구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조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맛 좋은 '진안고원 사과' 베트남 시장 수출길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은 지난 23일 전북농협이 주관하고 진안·무주·장수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후지 사과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사과(후지)는 140g 이상의 사과로 2.5kg봉지 기준으로 5,120봉지, 약 13여톤에 달하며 현지 Big마켓, An Nam슈퍼마켓, Nova슈퍼마켓 등 베트남(호치민) 현지 매장에서 판촉행사 및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안고원 사과는 남한 유일의 진안고원, 즉 일교차가 큰 청정 고랭지 지역의 특성 등 사과 재배의 적격지에서 재배되어 아삭한 식감과 우수한 저장성을 자랑하며, 맛과 향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해외 바이어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수출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진 대표는 "진안고원 사과가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되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적식에 참여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진안고원 사과가 산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과수화상병 사전차단 총력

전북 최대 사과 주산지인 장수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사전차단을 위해 중점기간을 설정하고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성 병해로,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 될 시 주변을 폐쇄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 겨울철 전

정 시 수피가 갈라지는 형태, 수피가 터지고 검게 변하는 형태 등의 궤양 제거를 해줘야 하며, 또한 작업 도구는 70% 이상의 알콜에 수시로 침지소독을 해줘야 한다.

군은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약제 3회, 예측시스템 10개소 설치 등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화상병 예방약제 지원에 4억원, 예찰단 운영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내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은 축산농가 경쟁력을 위해 2023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들을 대상으로 내년 13일(양봉의 경우 1월 6일까지)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대상 농가는 축산관련 사업의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와 전업규모 미만 축산농가, 최근 3년 동안 보조금 수령액이 적은 농가이며, 양봉관련 사업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경영체도 등록한 농가다.

지방재정 여건상 농가에서 원하는 지원 사업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없어 한정된 준비(자체재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대상자가 확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되면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내년부터 사업비 22억원 800여만 원을 들여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을 비롯해 꿀 생산 장비 지원, 양봉농가 사료지원, 한우생산기반 구축, 농기계지원, 젖소농가 우수생산 지원 등 11개 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농가 소득 위한 영농정보 담은 책자 발간

무주군이 '2023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 5천부를 발행하고 지난 23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업관련 부서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무주군 농업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범)사업 및 주요 업무, 변화된 농정시책 등을 보다 쉽게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역내 농업인들은 26일 월요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따끈한 책자(책자 소진시까지)를 받아들 수 있다.

200쪽 분량으로 무주군 농업관련부서인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복지과의 각종 지원사업과 영농관련 다양한 정보, 주요업무를 책자에 담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